

“종교간 화합 통한 상생 이룰터”

7월 10일, 정읍시 종교협의회 발족

건전한 정신문화 정립과 시민화합을 위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정읍지역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회를 발족했다.

7월 10일 각 종교지도자들은 ‘정읍시종교협의회’를 발족하고 초대 회장에 김재조 목사(정읍 영생교회), 부회장에 원공 스님(정토사), 베드로 신부(연지동 성당), 이성희 교감(정읍교당)을 추대하고, 감사에 대우 스님

(백련암)을 선출했다.

종교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정읍지역 종교지도자들은 정례모임을 갖고 종교 간 상호 이해를 통한 종교인 화합 및 시민의식 개척, 건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발족식에 모인 종교지도자들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행복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 종교인이 앞장 서자”고 결의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김제 금산사 여름 禪 수련회 개최



7월 18일 금산사 수련법회 참가자들이 참선을 통해 자신을 관하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 부리는 요즘 나태하기 쉬운 자신을 가다듬어 마음을 뒤고 영혼을 살피우는 수련법회가 7월 18-20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렸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법회는 참선과 염불수행을 병행해 수행의 큰 움직임과 세밀한, 빠듯한 완만함을 함께 갖췄다.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수행 속에 자기 삶의 존재적 가치관을 발견하고 수련법회 후에도 일상수행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7월 18일 입제식 후 참가자들은 금산사에 관한 문화해설을 듣고 예불과 주시스님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받는 것으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했다.

새벽 예불에 이은 108경회와 참선, 300배 올맹정진과 <금강경> 강독, 인경, 선(禪)테라피 요가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점점 맑아지는 마음을 느꼈다.

참가자들은 질 수행을 통해서 참회를 익히고 염불수행과 탑돌이 수행으로 발원을 세우며 참선수행으로는 지혜와 자비를 배웠다.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새벽 숲길을 걷는 포행은 또 하나의 수행이다. 어느새 망상들은 하나둘씩 사라져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마음도 밝아 온다.

수련법회를 지도한 일각 스님은 “우리 삶은 처음과 끝이 괴로움으로 이뤄져 다변화시대, 고도의 정보화 물질문명 시대, 사람과 상황에 따라 수많은 괴로움에 직면해 있다”며, “참선을 통해 자기 괴로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삶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살펴 괴로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당부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깍다거’ 법연으로 나투다

쌍봉사 철감·조주 영정 봉안식 열려



화순 쌍계사에 봉안된 조주 선사(좌)와 철감 선사 영정.

‘차 마시는 것과 선 수행이 한 맛(茶禪一味)’이라는 말은 선종 차문화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예다. 중국 조주 스님이 ‘깍다거(喫茶去)’라 말해 선다(禪茶)의 효시라면, 한국에는 철감 선사가 있다. 조주 선사와 철감 선사는 스승 남전 선사 밑에서 11년간 법연을 맺은 사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7월 12일 화순 쌍봉사(주지 영재)에 선종 차문화의 주역 조주 선사와 철감 선사의 영정이 봉안돼 ‘깍다거’의 법연을 이었다.

‘쌍봉사 호성전 철감·조주 선사 진영 점안식’에는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쌍봉사는 이번 영정 봉안을 위해 중국을 2번 오가며 조주 선사 목판상을 모태로 영정을 제작했다.

소설가 정창주씨는 두 스님의 영정 봉안 연유문에서 “철감 선사 도윤은 18세(815년)에 김제에서 출가해 10년 동안 화엄학을 배우던 중 ‘깨달음의 통발과 그물이 어찌 심인(心印)의 묘한 이치만 하겠는가’라고 크게 발심했다. 28세에 사신의 배를 얻어 당나라로 들어가 철감 선사는 바로 남전 선사의 제자가 돼 밤낮으로 심법(心法)의 묘리를 익혔다. 마침내 남전 선사는 ‘우리 종의 법인이 동국으로 돌

아가는구나’ 하고 선사를 인가했다고 한다. 선사는 남전 선사 열반 후 13년간 당나라 여러 선사 문하에서 정진 후 문성왕 9년(847) 50세에 귀국했다”고 말했다.

조주 선사에 대해 정씨는 “조주 선사는 778년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해 남전 선사를 찾아 제자가 된 후 40년을 시봉했다. 남전 선사에게 도를 묻다가 ‘평상의 마음이 도’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선사는 120세 열반에 들기까지 ‘무(無)’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 ‘차나 한잔 마시

게(喫茶去)’라는 많은 화두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영재 스님은 인사말에서 “철감 선사와 조주 스님의 다연을 현대에 맞춰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철감·조주 선사 진영식은 역사적 전거를 밝히고 중국 고증자료를 확인해, 고승에게 인가 받는 등 정창주씨의 숨은 공로로 가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자연과 하나된 어린이 템플스테이

7월 28~30일, 증심사 어린이 숲속학교

호남지역 어린이를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광주 증심사는 7월 28-30일 증심사와 무등산 일대에서 ‘제2차 어린이 숲속학교’를 연다.

이번 어린이 숲속학교는 지난해 제1회때 선풍적 인기몰이에 힘입어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과 어린이 캠프를 접목시켜 환경과 전통이 하나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도체험, 숲 탐방, 우리문화 바로알기, 증심사 역사알기, 환경 먹거리 체험,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 마음을 밝히는 촛불발원 등이 진행된다. 행사 중에는 일체의 과자, 음료수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는대신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친환경 경작인 먹거리를 제공해 참가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도 도모했다.

행사 실무 책임을 맡은 조영훈 사무국장은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사회의栋梁으로 키우기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621226-01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독신청·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동현안규 조사 탄생 봉찬대제

7월 16일 장안산 정상사

7월 16일 장안산 정상사에서 동현안규 조사 탄생 제113회 봉찬대제가 열렸다.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운)는 보존처 전북지부 김대일 지부장과 김상두 이사장(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등 사부대중의 동참 속에 봉찬대제를 봉행했다. 봉찬대제 후에는 ‘은겨레를 위한 제8회 산상기도’를 봉행해 국대민안과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했다.

도운 스님은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는 제불통계(諸佛通偈) 설법에서 “부처님 법아래 온겨레 민중생이 수행에 정진해 인력과 평화를 누릴 것”을 당부했다. 조종제 기자

부부나혼자 광주지역운불자연연합회 이현만 회장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법륜은 부처가 중생 제도를 위해 가르침을 퍼는 것을 말한다. 전법륜(轉法輪), 즉 ‘법륜을 굴린다’고 표현한다. 법륜이 멈추지 않고 항상 구르는 것처럼 불멸은 어느 한 곳, 어느 한 사람에 머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생계를 회전해 시방삼세 일체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간다.

광주 도심에서 전법륜의 상징물을 달고 활동하는 신행단체가 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자임하고 신행활동 하는 한국운불자연연합회 광주지역회(이하 광주운불련) 이현만 회장을 만났다.

“운불자 회원들이 거리의 포교사임을 자랑스레 여긴다. 불교방송과 명상음악을 틀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하는 것부터가 운전 포교의 시작”이라는 말은 광주운불련 회원들의 자부심이 어떠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광주운불련은 1992년 발족해

체를 심각하게 의논 중”이라는 이 회장의 말은 최근 침체된 경기도 광주운불련 회원들에게도 어려운 고비임을 짐작케한다.

현재 부름택시의 하루 이용객은 70여명이다. 하루 평균 250여건의 전화가 오던 5년 전에 비하면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콜센터 안내원의 급여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광주운불련은 콜비를 받지 않는다. 더군다나 일반 택시기사들

불교방송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

현재 100여명의 개인택시 기사와 재기불자들이 활동중이다.

그동안 광주지역 불교에서 광주운불련의 역할은 대단했다. 광주지역의 거의 모든 불교행사에 항상 20여명 이상이 참석해 교통정리, 행사장 안전요원, 행사장 안내 등 주목 받는 일은 아니어도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10여년 넘게 해와 광주운불련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특히 지역 불교복지시설과 연계해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자들의 나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광주운불련이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마이카 시대에 들어 이용객들이 급감해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부름택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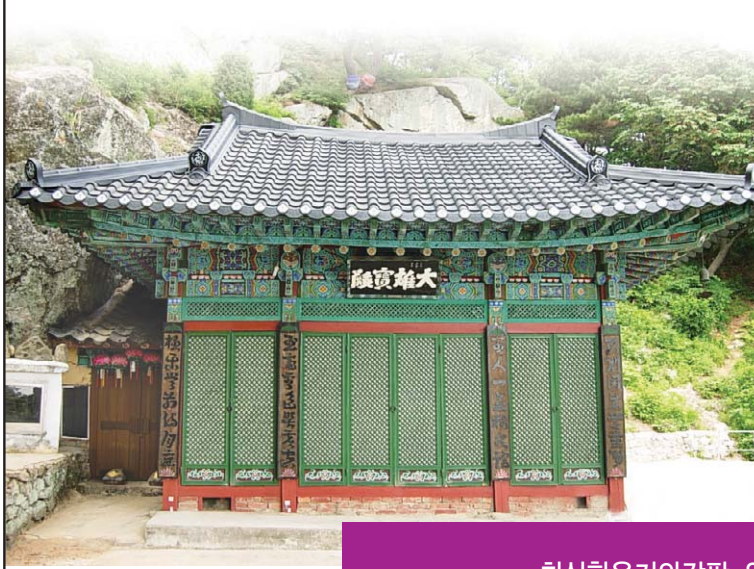
이 기피하는 시외 사찰로의 운행도 광주운불련 회원들만의 예외다. 도심에서 떨어진 사찰까지도 친절하게 안내해 온 광주운불련에 많은 불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만 회장은 40세가 되던 1996년 운불련에 들어와 불교와 인연 맺었다. 2005년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받았고, 운불련 포교 부장과 총무를 거쳐 지난해 운불련 회장 소임을 맡았다.

대학생 아들 딸을 둔 그는 “불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돕고 사는 마음을 보여야 한다”며 화합과 상생을 화두로 삼고 있다. 이현만 회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거리를 달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